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2권 4호 (2019년 12월)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목 차

한국 아동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심리, 사회환경, 어머니 양육행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	김원경, 권희경
주관적 인지저하 노인들의 기억의 긍정성 효과: 정상 노인 및 경도인지장애 환자와의 비교	이현호, 강연욱
학령 후기 자녀가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신체자존감 간의 관계에서: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의 매개효과와 및 모 심리적 통제의 조절된 매개효과	설경옥, 장지혜, 신지윤, 하소정, 김서영
분노 정서조절 과정에서 나타나는 연령차 및 개인차: 노인 집단과 대학생 집단 비교	강효신, 권정혜
성인 초기 여성의 물질주의, 외모주의와 성형수용태도 종단연구	김현지, 이지현, 권혜중, 설경옥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심리적 통제와 청년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 자녀의 자율성 욕구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이인영, 정영숙
청소년 성격평가질문지(PAI-A) 증보판의 요인구조: 일반 및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손현진, 박은영, 홍상황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아통합감과 회복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이지현, 양수진

발행처 : 한국발달심리학회
발행인 : 송하나(성균관대학교)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93 진빌딩 2층
전 화 : 02-336-6672

인쇄일 : 2019년 12월 15일
발행일 : 2019년 12월 15일
제작처 : 책과공간
(02-725-9371)

편집위원장 : 이승연(이화여자대학교)

편집위원 : 강연욱(한림대학교) 김기연(중앙대학교) 김혜리(충북대학교) 노수림(충남대학교)
서미정(제주대학교) 송주현(California State University) 송현주(연세대학교) 신희영(전북대학교)
유연옥(계명대학교) 최유정(Harvard University) 한세영(이화여자대학교)
Daniel Choe(UC Irvine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심사위원 : 강호신(경성대학교) 김근영(서강대학교) 김기연(중앙대학교) 김연수(전주대학교)
남미경(인간발달복지연구소) 서고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동기(한림대학교) 서미정(제주대학교)
설경옥(이화여자대학교) 설현수(중앙대학교) 성은현(호서대학교) 손은정(계명대학교)
양수진(이화여자대학교) 양재원(가톨릭대학교) 윤진영(세명대학교) 이승연(이화여자대학교)
이종구(대구대학교) 장은영(호남대학교) 장혜인(성균관대학교) 장희순(용인대학교)
정윤경(가톨릭대학교) 조설애(부산대학교) 하정희(한양대학교) 한세영(이화여자대학교)
한소원(서울대학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은 한국발달심리학회의 기관지로서 연 4회 간행되며, 발달심리학 분야의 연구논문, 자료 및 논평을 게재한다.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은 일정한 구독료를 받고 배부하며, 한국심리학회에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구독이 가능하다. 비회원의 구독에 관해서는 편집위원회 사무실로 문의하기 바란다.

Vol. 32, No. 4

November 15, 2019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published quarterly-annually
by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journal is issued quarterly-annually and carries research articles based on empirical data & theoretical review. Subscription inquiries and manuscript submission should be directed to: Editor,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Editor : Seung-yeon Lee(Ewha Womans University)

Associate Editor : Yeonwook Kang(Hallym Univeristy) Giyeon Kim(Chung-Ang University)
Hei-Rhee Ghim(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oo Rim Noh(Chungnam National University)
Mijung Seo(Jeju National University) Ju-Hyun Song(California State University)
Hyun-joo Song(Yonsei University) Huiyoung Shin(Chonbuk National University)
Younoak Yu(Keimyung University) Youjung Choi(Harvard University)
Sae-Young Han(Ewha Womans University)
Daniel Choe(UC Irvine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한국심리학회지

발 달

제 32 권 제 4 호 / 2019. 12.

한국 아동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심리, 사회환경, 어머니 양육행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	김원경, 권희경 / 1
주관적 인지저하 노인들의 기억의 긍정성 효과: 정상 노인 및 경도인지장애 환자와의 비교	이현호, 강연욱 / 21
학령 후기 자녀가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신체자존감 간의 관계에서: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의 매개효과와 및 모 심리적 통제의 조절된 매개효과	설경옥, 장지혜, 신지윤, 하소정, 김서영 / 43
분노 정서조절 과정에서 나타나는 연령차 및 개인차: 노인 집단과 대학생 집단 비교	강효신, 권정혜 / 59
성인 초기 여성의 물질주의, 외모주의와 성형수용태도 종단연구	김현지, 이지현, 권혜중, 설경옥 / 83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심리적 통제와 청년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 자녀의 자율성 욕구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이인영, 정영숙 / 103
청소년 성격평가질문지(PAI-A) 증보판의 요인구조: 일반 및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손현진, 박은영, 홍상황 / 123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아통합감과 회복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이지현, 양수진 / 151

한국발달심리학회

분노 정서조절 과정에서 나타나는 연령차 및 개인차: 노인 집단과 대학생 집단 비교

Received: October 15, 2019
Revised: November 20, 2019
Accepted: November 23, 2019

강효신¹, 권정혜²
경성대학교 심리학과¹, 고려대학교 심리학과²

교신저자: 권정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인문계 캠퍼스 법학관 구관
408호

Age related-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real emotion regulation after anger mood induction:
A comparison of young and older adults

E-MAIL:
junghye@korea.ac.kr

Hyo-Shin Kang¹, Jung-Hye Kwon²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soong University¹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²

© Copyright 2019.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 이 논문은 강효신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ABSTRACT

본 연구는 분노 정서를 경험할 때 정서조절 과정에서 나타나는 연령에 따른 차이와 개인차를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노인과 대학생 집단 각각 50명을 대상으로 부정 정서를 유도하는 두 편의 동영상을 시청한 후, 대략 25분간 2분 간격으로 자신의 기분 상태를 0-100점 범위의 시각 아날로그 척도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노인은 대학생에 비해 부정 정서로부터 더 빠르게 긍정적인 기분으로 변화하는 경향성을 보여 정서조절에서의 연령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정서조절 과정에서 개인차가 나타나는지 검증하기 위해 노인과 대학생 참가자의 기분평가를 토대로 각각 성장혼합모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은 긍정-유지, 부정-감소, 그리고 중립-증가 집단, 대학생은 긍정-유지, 부정-유지, 그리고 중립-증가 집단으로 분류되어, 노인과 대학생 모두 각각 세 개의 잠재집단이 도출되었다. 집단에 따른 특성 차이를 분석하였을 때, 노인 집단은 부정 정서 경험과 불안 수준에서, 대학생 집단은 긍정 정서 경험과 정서조절 전략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조절에서 연령차를 보이며, 노인 집단 내에서도 개인차 특성이 정서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분노 정서조절, 사회정서 선택 이론, 개인차, 성장혼합모형

최근 20년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노화에 따라 신체 및 일부 인지 기능에서 저하를 보이는 것과 달리 정서 기능은 유지되거나 향상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Charles, Mather, & Carstensen, 2003). 이러한 현상을 사회정서 선택 이론(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미래를 제한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며, 이로 인해 긍정 정서를 최대화하고 부정 정서를 최소화 하려는 정서조절이 최우선 목표가 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설명한다(Carstensen, 1992, 1995, 2006).

정서조절이란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를 언제, 어떻게 경험하고 표현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의미한다(Gross, 1998). 정서조절 전략을 분류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Gross와 John(2003)은 정서조절 전략을 크게 선행사건 초점 전략(antecedent-focused strategies)과 반응 초점적 전략(response-focused strategies)으로 구분하였다. 선행사건 초점적 전략의 대표적인 예로 인지적 재해석(cognitive reappraisal)이 있으며, 반응 초점적 전략의 대표적인 예로 표현 억제(expressive suppression)를 들 수 있다. 인지적 재해석은 정서 정보를 재해석함으로써 그것의 정서적 의미를 바꾸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표현 억제는 정서-표현 행동을 억제하는 것을 포함하는 반응 양식을 일컫는다(Gross & John, 2003).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러 정서조절 전략 중 개인이 무엇을 선택하고 주로 사용하느냐는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Martins, Ponizio Velasco, Kaplan, & Mather, 2016; Opitz, Rauch, Terry, & Urry,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 과정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와 개인차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노년기 정서특성

노년기 정서 연구에 따르면 연령 증가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정서적 안녕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경, 이주일, 강연옥, 박군석, 2009; Carstensen, Turan, Scheibe, Ram, Ersner-Hershfield, Samanez-Larkin, Brooks, & Nesselroade, 2011; Charles, Reynolds, & Gatz, 2001). Carstensen 등(2000)이 18-94세 참가자 184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를 통해 일주일 간 정서 경험을 표집 한 결과, 긍정 정서 경험은 연령에 관계없이 비슷하게 유지되며 부정 정서 경험의 빈도와 지속시간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roczek(2001)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긍정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정서 경험에서의 연령차는 종단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Carstensen 등(2011)은 초기 연구에 이어 10년에 걸쳐 3번의 정서 경험을 표집하고 성장곡선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긍정 정서 경험이 증가하고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가 함께 나타나는 경향 역시 증가하며,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연구 결과 역시 이러한 입장을 지지한다. 유경과 민경환(2005a, 2005b)의 연구에서도 노인들이 중년에 비해 부정 정서를 덜 경험하고 긍정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며, 높은 수준의 정서복잡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기에도 정서조절을 통해 정서적 안녕감을 유지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유경 등(2009)은 횡단 연구뿐만 아니라 종단 연구를 통해 이를 입증하였다. 65세 이상 노인 844명을 대상으로 연령 증가에 따른 긍정 정서 경험과 부정 정서 경험의 변화를 살펴 본 결과

노인들은 부정 정서보다 긍정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정서최적화 특성을 보였다. 또한 노인들의 긍정 정서는 연령 증가에 따라 완만하게 감소하며 부정 정서는 일관된 패턴을 보이지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정서조절 차이

노인들에게 자기보고 설문지를 통해 직접 질문했을 때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긍정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안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왔다(Carstensen et al., 2011; Gross, 1998; Scheibe, English, Tsai, & Carstensen, 2013). 반면 실험 상황에서 정서를 유도하고 정서조절 전략을 조작한 후 정서 조절에서 연령차가 나타나는지 살펴 본 연구들의 결과는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다. 즉 부정적 정서 경험에 대해 인지적 재해석, 억제, 주의분산 등 여러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도록 하였을 때, 사용된 전략에 따라 연령차가 나타난 연구(Opitz et al., 2012; Phillips, Henry, Hosie, & Milne, 2008; Shiota & Levenson, 2009)와 연령차를 보이지 않은 연구(Lohani & Isaacowitz, 2014; Martins et al., 2015)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Shiota와 Levenson(2009)은 20대, 40대 및 60대 참가자를 대상으로 부정 정서를 유발하는 영상을 보면서 세 가지 정서조절 전략(거리두기 재해석, 긍정적 재해석, 표현 억제)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거리두기 재해석 전략의 사용은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반면, 긍정적 재해석 능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pitz 등(2012)은 fMRI를 촬영하는 동안 인지적 재해석 과제를 실시하도록 한 후 내측 전전두엽 영역에 활

성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적 재해석을 사용하여 부정 정서를 감소시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Lohani와 Isaacowitz(2014)는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 긍정적 재해석은 더 성공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정서 억제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제안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특정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대신 자신들이 사용할 정서조절 방식을 선택하도록 한 결과, 부정 정서에 대해서는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았다(Martins, Sheppes, Gross, & Mather, 2018).

이처럼 정서조절에서의 연령차와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서조절 전략에 따라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실 상황에서의 정서조절 연구가 갖는 한 가지 제한점은 통제된 상황에서 정서를 유발하고, 사용할 정서조절 전략을 지시하거나 특정 짓는다는 데 있다. 실험 상황에서 평가된 전략이 실제 노인들이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전략인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정서 처리과정은 본질적으로 역동적이며 긍정·부정 정서의 정도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최대한 일상생활과 근접한 영상을 사용하여 정서를 유발하고, 특정 정서조절 전략을 제시하기보다는 참가자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서를 조절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자기보고 설문지를 통해 정서조절 전략을 함께 확인하였다.

정서조절의 개인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년기 정서 특성에 대

한 많은 연구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서조절 능력이 향상된다고 제안하였다(Carstensen et al., 2011; Charles et al., 2001). 그렇다면 과연 모든 노인들이 우수한 정서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일부 노인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 더 나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노인과 젊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령차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서조절에서의 개인차를 살펴 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부정 정서를 경험할 때 정서조절 과정에서 개인차가 나타나는지 알아 본 연구 두 편을 살펴보면, 우선 Larcom과 Isaacowitz(2009)는 노인과 대학생 참가자를 대상으로 부정 정서를 유도한 후 일정 시간 내에 정서를 더 빠르게 조절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분류해 보았다. 그 결과 예상대로 노인이 대학생에 비해 더 빠르게 정서조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빠른 정서조절자로 분류된 노인들은 더 낮은 수준의 특성불안, 우울, 신경증, 비관주의를 보였으며, 더 높은 수준의 낙관주의를 나타냈다. 반면 대학생의 경우 두 집단 간 정서-관련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다른 연구에서 Stanley와 Isaacowitz(2011)는 노인들이 정서 경험을 할 때 나타나는 정서 프로파일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의 기분변화에 따라 하위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과 관련된 특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 결과, 노인은 긍정, 부정 및 중립 정서로 가는 모든 유형의 정서변화를 골고루 보인 반면, 대학생 집단은 대부분이 중립적인 기분으로 이동하는 유형에 포함되었다. 또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집단은 지속적으로 긍정적 혹은 긍정에서 중립으로 가는 집단에 포함된 사람들에 비해 처리 속도가 더 느리고 상태불안과 신경증 수

준이 더 높으며 행복한 얼굴 표정을 덜 응시하는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모든 연구에서 정서조절의 개인차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 진행된 박은선과 이영호(2016)의 연구에서 노인과 청년 집단을 대상으로 정서조절 능력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연령차는 나타났다, 정서조절 속도에서의 차이와 개인의 심리적 특성(낙관성, 우울, 불안 수준 등)과의 관련성을 밝히지는 못하였다.

이제까지 살펴 본 정서조절의 개인차에 관한 연구들이 갖는 한 가지 문제점은 개별 정서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슬픔, 분노 및 중립 정서 중 무선적으로 정서를 배경하거나 개별 정서의 구분 없이 부정 정서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노인 집단은 동일한 부정 정서 중에서도 개별 정서에 따라 다른 정서조절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irditt & Fingerman, 2005; Charles & Carstensen, 2008). 유도된 정서가 분노, 슬픔, 혹은 혐오인지 등에 따라 노인이 그 정서를 경험하고 이에 대해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경험하게 되는 대표적인 부정 정서인 분노와 슬픔 중, 슬픔에서는 노인과 젊은이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분노 경험에서는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Charles & Carstensen, 2008).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서조절, 특히 대인관계에서의 정서조절이 중요시되는데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협한다. 반면 슬픔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은 개인 간의 유대를 강하게 할 수 있다(Mienaltowski, Corballis, Blanchard-Fields, Parks, & Hilimire,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부정 정서 중 노년기에 우선시되는 대인관계에서의 정서조절 목표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분노

정서를 유발함으로써, 정서조절 양상에서의 연령차 및 개인차를 명확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서조절의 개인차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갖는 또 다른 제한점으로 분석방법을 들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기본평가를 토대로 집단을 분류할 때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반복적인 기본평가는 개인내적 변인으로 서로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집분석보다는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ing, GMM)이 더 적절한 분석방법으로 볼 수 있다. 성장혼합모형은 초기치와 기울기의 유사성에 따라 서로 다른 변화 궤적을 구분하는 분석법으로, 모집단이 동질적인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관찰되지 않은 이질적인 하위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Muthén, 2004). 즉 하나의 모집단 내에서도 서로 다른 성장변화를 나타내는 하위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이질적 성장 궤적을 보이는 잠재집단을 추적한다(신태수, 2010). 따라서 성장 변화에서의 집단차를 기술하고 사후 분석의 틀을 제공하는데 유용한 분석법이다(Ram & Grimm,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분노 정서를 유발하고, 특정 정서조절 전략을 제시하기보다는 참가자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서를 조절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험은 Larcom과 Isaacowitz(2009) 및 Stanley와 Isaacowitz(2011)의 방법을 수정·보완하여 진행되었다. 또한 자기보고 설문지를 통해 주로 사용하는 정서조절 전략을 함께 확인하였으며, 노인들이 보이는 긍정효과 특성에서 인지적 자원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인지관련 변인들도 함께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노년기 정서조절 양상을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주관적인 자기보고 상 정서조절 전략에서 노인과 대학생 집단 간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일 것인가?

연구 문제 2. 실험을 통해 부정 정서 유도 후 정서조절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노인과 대학생 집단 간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일 것인가?

연구 문제 3. 기본변화 형태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였을 때 정서조절 과정에서 개인차가 나타날 것인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60세 이상의 노인 50명과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대학생 참가자는 온라인 게시판 공고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노인 참가자는 평생 교육원, 노인 종합 복지관, 교회 혹은 지역 게시판 등을 통해 모집하였다. 노인 집단 참가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1) 60세 이상, (2) 중졸 이상의 학력, (3) 실험에 참가하는데 신체(예, 청력 혹은 시력 문제) 및 인지적 문제가 없는 사람. 또한 실험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간단한 사전 면담을 실시하여 신경학적 장애나 정신과적 장애 병력(예, 신경인지장애, 뇌졸중, 우울증 등)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참가자에서 제외하였다. 모든 참가자는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하였으며, 소정의 참가비를 받았다. 모든 절차는 해당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하에 실시되었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집단 간 평균(표준편차) 비교 (N=100)

	노인 (n=50)	대학생 (n=50)	<i>t</i> / χ^2
연령 (세)	64.52 (3.33)	24.24 (2.95)	
성별 (여자, %) ^a	30 (60%)	30 (60%)	.00
교육연한 (년)	14.44 (2.55)	14.94 (1.28)	-1.24
사회경제적 수준	3.26 (.60)	3.18 (.92)	.52
결혼 여부 (n, %) ^b			
기혼	43 (86%)		
이혼	3 (6%)		
사별	4 (8%)		

^a카이 제곱 검정. ^b노인 참가자만 시행함.

노인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64.52세(표준편차 3.33)이고 연령 범위는 60-76세이었고, 대학생의 평균 연령은 24.24세(표준편차 2.95), 연령 범위는 19-33세이었다. 교육연한은 노인이 평균 14.44년(표준편차 2.55), 대학생이 평균 14.94년(표준편차 1.28)이었다. 사회경제적 수준에서는 노인과 대학생 집단 모두 중-중상으로 표시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결혼여부를 질문하였을 때 기혼이 43명(86%), 이혼과 사별이 각각 3명(6%)과 4명(8%)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 집단에게 K-MMSE를 실시하였을 때, 평균 28.62점(표준편차 1.18), 범위는 26-30점으로 모든 참가자가 정상적인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집단 간 성별, 교육연한 및 사회경제적 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1).

측정도구

긍정 및 부정정서 척도

최근의 정서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조아라와 정

영숙(2012)의 연구에서 사용한 긍정 및 부정 정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한국판 긍정 정서 및 부정 정서 척도(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에 있는 정서 중 노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의미 전달이 쉽지 않은 단어(강한, 단호한, 주의 깊은, 과민한, 기민한, 부끄러운, 겁에 질린)를 제외하고, 한국인의 행복 지수 척도(서은국, 구재선, 이동귀, 정태연, 최인철, 2010)에서 제시한 6가지 정서를 추가하여 구성된 척도이다. 긍정 정서 9문항과 부정 정서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외국에서 사용하는 긍정-부정 정서 척도를 참고하여 5점 척도(1: 거의 느끼지 않는다; 5: 매우 자주 느낀다)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조아라와 정영숙(2012)의 연구에서 긍정 정서 측정 문항과 부정 정서 측정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각각 .86과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노인 집단은 각각 .86과 .84, 대학생 집단은 각각 .88과 .89로 나타났다.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ES-D)

현재 우울 증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adloff (1977)가 개발하고 전경구, 최상진, 양병찬(2001)이 번안한 통합적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의 긍정문항과 16개의 부정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개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16점을 절단점으로 본다. 전경구 등(2001)이 보고한 내적합치도 계수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노인 집단은 .77, 대학생 집단은 .88로 나타났다.

Spielberger 특성불안 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T)

상태-특성불안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 Gorsuch와 Lushene(1970)가 개발하고 김정택 (1978)이 번안 연구한 Spielberger 상태-특성불안 척도 중 특성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느끼는가(특성불안)를 묻는 2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개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김정택(1978)이 보고한 내적합치도 계수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노인 집단은 .84, 대학생 집단은 .91로 나타났다.

신경증적 성향

성격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John과 Srivastava (1999)가 개발하고 김지현, 김복환과 하문선(2011)이 번안 타당화 한 척도에서 신경증적 경향성(N) 한 개 요인의 3문항을 사용하였다. 수검자에게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

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성격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지현 등 (2011)의 연구에서 보고한 내적합치도 계수는 .7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노인 집단은 .85, 대학생 집단은 .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 질문지(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ERQ)

정서조절 노력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Gross와 John(2003)이 개발하고 손재민(2005)이 번안한 정서조절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정서를 유발한 선행 사건을 인지적으로 재해석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인지적 재해석' 6문항과 정서 반응 시기에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지 않고 억제하려는 정도를 측정하는 '정서표현 억제'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손재민 (2005)이 보고한 내적합치도 계수는 인지적 재해석 척도가 .85, 정서표현 억제 척도가 .7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두 하위척도에 대해 노인 집단은 .73과 .68, 대학생 집단은 .77과 .8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Korean version of the 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 K-SWLS)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이 개발하고 조명환과 차경호(1998)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7점 척도(1: 매우 아니다; 7: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노인 집단은 .65, 대학생 집단은 .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인지기능 평가

전반적인 인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형 간이 정신상태 검사(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K-MMSE) (강연옥, 2006)와 한국판 성인용 웨슬러 지능검사 4판(Korean-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IV, K-WAIS-IV)의 소검사 중 숫자, 어휘 및 기호쓰기 과제를 실시하였다.

부정 정서 유도 자극

연구 참가자에게 부정 정서 중 분노를 유발하기 위해 두 편의 뉴스 동영상을 선정하였다. Gross와 Levenson(1995)에 따르면 정서를 유발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실험자극 중 영상(film)은 표준화가 용이하고 동적이며 높은 생태학적 타당성을 보인다는 장점이 있다. 영상을 제시하는 시간이 너무 길 경우 집중력이 저하되고 이질적이며 덜 효과적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자극 길이는 대략 1분 30초-2분으로 정하였다(장은혜, 석지아, 엄진섭, 손진훈, 2005; Gross & Levenson, 1995).

정서 자극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화차를 고려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진 영상 자극 관련 연구들을 토대로 몇 편의 분노 유발 영상을 선정하였다(이승조, 최남도, 2009). 예비 연구를 위해 선정된 영상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모욕을 당하는 영화 장면, 사회적 약자가 학대를 당하는 장면 등 네 가지였다. 선정된 영상을 다양한 연령대(20-60대) 참가자 10명에게 보여주고 분노 정서 유발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영화 장면은 짧은 시간에 상대적으로 몰입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제한점을 보

였고, 학대 장면은 학대를 당하는 대상과 영상을 시청하는 대상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분노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예비연구에 참가한 사람들이 가장 분노를 잘 유발한다고 응답한 뉴스 영상 두 편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제시된 영상의 내용은 어린이집 교사가 반찬을 남긴다는 이유로 아이를 구타하는 것과 사회복지사가 장애인 시설에 있는 지적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발하는 것이었다.

실험장치

두 편의 영상과 정서 유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제는 E-Prime 2.0을 통해 제시되었다. 자극은 19인치 모니터에 70Hz refresh ratio로 제시되었으며 참가자들이 약 60cm의 거리에서 컴퓨터 화면을 자연스럽게 바라보도록 하였다. 모든 영상의 밝기와 크기는 동일하게 조정되었다.

실험절차

1단계: 자기보고 설문지 작성

참가자들은 실험 장소에 도착하여 실험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듣고 자기보고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2단계: 현재 정서 평정

설문지 작성을 완료한 후 분노 정서를 유도하기 전 affect grid(9×9)를 통해 현재 정서 상태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가로축은 정서가를 9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1: 매우 부정적, 화가 나는, 불쾌한; 5: 보통; 9: 매우 긍정적, 기쁜, 만족스러운), 세로축은 각성가를 9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었다(1: 매우 침착한, 지루한, 긴장이 풀리는; 5: 평소와 같은; 9: 매우 흥분된, 자극적인, 잠이 깨는). 참

가자들은 affect grid에 정서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자신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정서가와 각성가를 바탕으로 affect grid 상에 정서 상태를 'V'로 표시하였다.

3단계: 분노 정서 유발

영상시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이제부터 짧은 뉴스 영상 두 편을 시청하시게 됩니다. 편안한 자세로 시청하여 주십시오."), 분노 정서를 유도하는 1분 30초가량의 뉴스 영상 2편을 연달아 시청하였다. 영상을 시청한 이후, 분노 정서가 적절히 유도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화면에 제시되는 affect grid 상에 현재 정서 및 각성 상태를 마우스를 사용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횟수의 제한은 없었으며, 정서 및 각성 상태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때 실험 진행자는 듀얼 모니터를 통해 참가자의 현재 정서 상태를 확인하며 참가자가 표시한 정서가 부정적인 상태로 2분 이상 지속될 경우 분노 정서가 유도된 것으로 판단하고 정서를 표시하는 것을 멈추도록 하였다.

분노 정서 유도 절차 전후 affect grid를 통해 측정된 정서가와 각성가를 비교한 결과, 분노 정서를 유도하기 전 모든 참가자의 정서가 평균은 6.30(표준편차 1.40), 각성가 평균은 4.47(표준편차 1.45)이었으며, 유도 절차 이후 정서가 평균은 1.57(표준편차 0.73), 각성가 평균은 7.95(표준편차 1.01)이었다. 유도 절차 전후 평균을 비교한 결과, 정서가($t(99)=28.87$, $p<.001$)와 각성가($t(99)=-19.33$, $p<.001$)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정서 유도 절차가 성공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4단계: 기분변화 양상 평정

분노 정서가 유도된 것을 확인한 후, 참가자들은 2분 간격으로 자신의 기분 상태를 0-100점 범위의 시각 아날로그 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에 표시하였다. 시각 아날로그 척도는 0-100점(0: 매우 부정적이다; 100: 매우 긍정적이다)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0단위로 막대 표시가 되어 있다. 참가자는 척도 상 어느 위치에든 자신의 현재 기분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할 수 있다. 기분 평정은 25분 동안 이루어졌으며, 매 2분 마다 기분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분을 표시하는 동안 누구나 쉽게 따라 그릴 수 있는 점선 따라 그리기 과제를 실시하였다. 따라 그리기 과제는 특정 정서를 유발하지 않는 그림으로 구성하였으며, 시간 내에 과제를 완료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하고 자유롭게 그리도록 설명하였다. 따라 그리기 과제를 하는 동안 2분 간격으로 진동이 울리는 타이머를 사용하여 참가자들이 기분 평정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였다.

모든 실험 절차가 완료된 이후 참가자들에게 현재 기분과 실험에 참여한 소감을 물어보았으며, 실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자료분석

전체 연구 참가자 100명(노인 50명, 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시간에 따른 기분변화에서 집단 차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정서조절 양상에 따라 잠재 집단(latent class)을 도출하고 각 집단에 속하는 개인을 확인하고자 성장혼합모형을 시행하였다. 최적의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성 지표, 분류의 질 등을 평가하였다. 정

보지수 중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on), SABIC (Sample-size Adjusted BIC) 세 가지를 고려하였으며, 모두 값이 작을수록 더 나은 모형을 의미한다. 또한 entropy 값을 통해 분류의 질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0에서 1 사이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하나의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이 증가한다. 대략 0.8 이상이면 좋은 분류로 볼 수 있다 (Muthén, 2004). 다음으로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통해 분류된 집단에 따라 참가자를 나누어 정서 및 인지 관련 변인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cheffe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Mauchly 구형성 검증에서 모든 변인들 간 상관성이 동일하다는 가설이 지지되지 않을 경우 Greenhouse-Geisser epsilon 교정값을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는 IBM SPSS 24.0과 Mplus 7.0

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결 과

정서경험 특성

노인 집단과 대학생 집단 간 정서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표 2). 노인은 대학생에 비해 부정 정서를 더 적게 경험하며($t(98)=-3.28, p<.01$), 우울 정서를 더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98)=-2.12, p<.05$). 또한 신경증적 성향이 더 낮으며($t(98)=-3.10, p<.01$), 정서조절 관련 척도 중 표현 억제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98)=5.48, p<.001$).

표 2. 정서 특성에 대한 집단 간 평균(표준편차) 비교 (N=100)

	노인 (n=50)	대학생 (n=50)	t
긍정 및 부정 정서 척도			
긍정 정서	27.96 (5.69)	28.02 (6.68)	-.05
부정 정서	18.76 (4.95)	22.88 (7.36)	-3.28**
CES-D	10.98 (5.55)	13.86 (7.86)	-2.12*
STAI-T	38.56 (7.72)	41.44 (10.34)	-1.58
ERQ			
인지적 재해석	29.12 (4.60)	27.80 (6.51)	1.17
표현 억제	19.44 (3.72)	14.12 (5.78)	5.48***
신경증적 성향	6.08 (2.38)	7.78 (3.07)	-3.10**
K-SWLS	24.18 (3.29)	22.64 (6.45)	1.51

주. STAI-T: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ERQ: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K-SWLS: Korean version of the 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

* $p<.05$. ** $p<.01$. *** $p<.001$.

기분변화 양상 비교

노인과 대학생 집단이 시간 경과에 따라 보이는 기분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그림 1). 기분 유도 절차 이후 최초 평정에서 마지막 평정에 이르기까지 두 집단 간 평균 점수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평가 시작 후 22분($t(98)=1.88, p=.06$) 및 24분 시점의 평정($t(98)=1.86, p=.07$)에서 노인 집단은 대학생 집단보다 더 높은 점수의 경향성을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Larcom과 Isaacowitz(2009)의 연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빠르게 정서를 조절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류해 보았다. 즉 분노 정서가 유발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 VAS에 최초로 평정한 점수를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하였는데, 이 때 기준점은 선행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50점으로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0-100점 척도 상에서 50-67점은 '중립', 68점 이상은 '긍정' 기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Isaacowitz, Toner, Goren, & Wilson, 2008; Larcom & Isaacowitz,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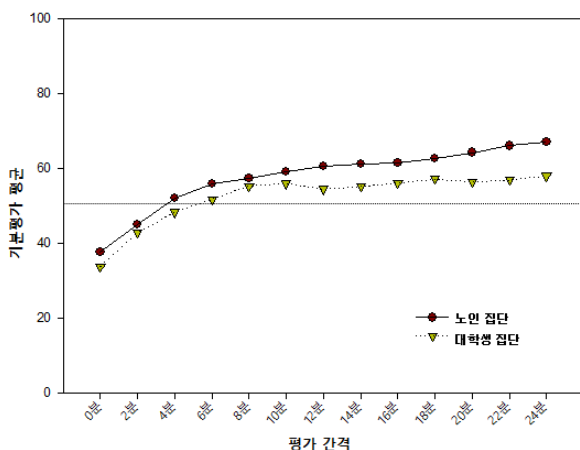


그림 1. 시간에 따른 기분변화 양상 평균 비교

따라서 최초 VAS 평정에서 50점을 초과하는 사람은 '빠르게 정서를 조절한 사람'으로, 50점 미만인 사람은 '빠르게 정서를 조절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 집단에서 빠른 정서 조절자의 비율(38%)이 대학생 집단(16%)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6.14, df=1, p<.05$).

기분변화 양상에 따른 집단분류

노인 집단 비교

기분변화 양상에 따른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각 시점의 기분평가 점수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잠재집단 수에 따라 정보지수와 분류의 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다(표 3).

분석 결과 잠재집단을 2개에서 4개로 증가시켰을 때 세 가지 정보지수와 분류의 질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형의 적합도 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설명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잠재집단의 수를 3개로 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분류된 3개의 잠재집단에 포함되는 참가자들의 초기값과 변화율이 표 4, 추정된 잠재집단 형태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각 집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집단은 최초 기분평가 점수가 높으며 변화율이 유의미하지 않아 긍정적인 기분 상태를 유지하는 형태를 나타내었다. 이에 '긍정-유지 집단'으로 명명 하였으며, 전체 참가자의 22%가 이 집단에 분류되었다.

두 번째 집단은 최초 기분평가 점수가 매우 낮았으나 이후 부정적인 기분 상태가 점차 감소하였으므로 '부정-감소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참가자의 22%가 이 집단에 포함되었다. 마지막 집단

표 3. 잠재집단 수에 따른 분류 기준 (N=100)

분류 기준	잠재집단 수					
	노인 (n=50)			대학생 (n=50)		
	2	3	4	2	3	4
정보지수						
AIC	4659.21	4658.35	4658.79	4623.93	4623.08	4615.11
BIC	4699.36	4704.24	4710.42	4664.08	4668.97	4666.73
SABIC	4633.44	4628.90	4625.67	4598.16	4593.64	4581.98
분류의 질						
Entropy	0.82	0.85	0.90	0.96	0.89	0.95
분류율 (%)						
집단 1	24.0	22.0	16.0	92.0	8.0	30.0
집단 2	76.0	22.0	4.0	8.0	62.0	4.0
집단 3		56.0	62.0		30.0	58.0
집단 4			18.0			8.0

주.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ABIC: Sample-size Adjusted BIC.

표 4. 기분변화 양상에 따른 집단별 초기값과 변화율의 평균(표준오차) (N=100)

	노인 (n=50)			대학생 (n=50)		
	초기값	변화율	비율 (%)	초기값	변화율	비율 (%)
긍정-유지	82.55 (5.09)***	-0.43 (0.64)	22.0	긍정-유지 69.23 (3.38)***	-0.42 (0.54)	30.0
부정-감소	13.58 (2.91)***	1.87 (0.49)***	22.0	부정-유지 13.35 (5.37)*	0.68 (0.97)	8.0
중립-증가	50.74 (3.14)***	1.99 (0.37)***	56.0	중립-증가 44.93 (1.69)***	1.34 (0.24)***	62.0

* $p < .05$. *** $p < .001$.

은 최초 기분평가 점수가 중간 수준으로 중립적인 기분을 보인 이후 유의미한 증가를 보여 '중립-증가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참가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인 56%가 세 번째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집단별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 유

의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잠재집단 분류에 따라 개인차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표 5). 이때 잠재집단 내에서의 통계적 유의도는 표본 수가 작기 때문에 탐색적인 목적에서 $p < .10$ 수준의 경향성까지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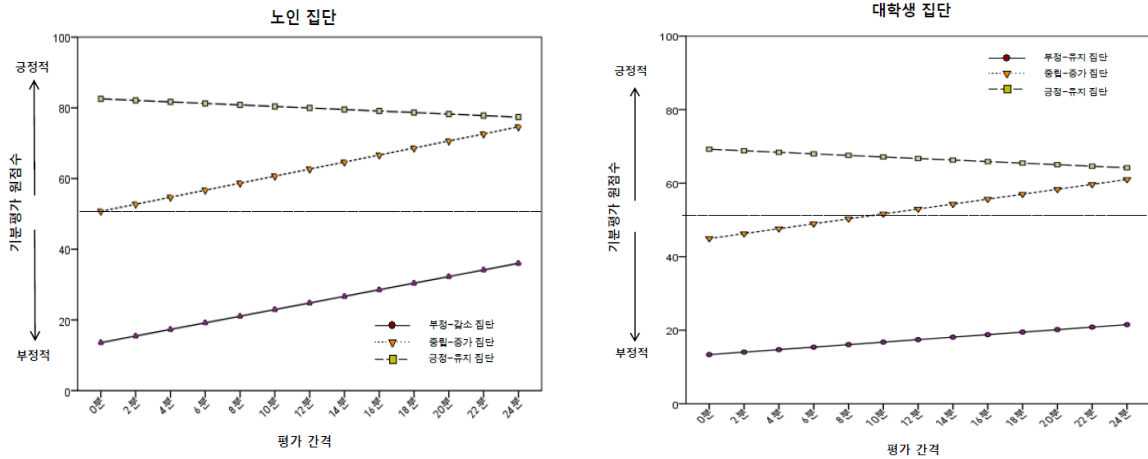


그림 2. 기분변화 양상에 따른 잠재집단 형태 (좌: 노인 집단, 우: 대학생 집단)

표 5. 잠재집단 분류에 따른 정서 및 인지적 특성 비교: 노인 집단 (N=50)

	긍정-유지 집단 (n=11)	부정-감소 집단 (n=11)	중립-증가 집단 (n=28)	F	post hoc
정서 관련 변인					
긍정 및 부정 정서 척도					
긍정 정서	29.36 (5.33)	25.27 (5.61)	28.46 (5.71)	1.72	
부정 정서	21.00 (5.97)	28.00 (6.84)	21.61 (7.35)	3.84*	2>1 [†] , 3*
STAI-T	39.73 (5.08)	41.73 (7.23)	36.36 (6.31)	3.26*	2>3 [†]
CES-D	11.82 (6.54)	17.64 (5.37)	13.18 (8.82)	1.80	
ERQ					
인지적 재해석	26.36 (2.91)	29.64 (5.20)	30.00 (4.60)	2.74 [†]	
표현 억제	18.09 (3.18)	18.55 (5.36)	20.32 (2.98)	1.89	
신경증적 성향	7.45 (3.48)	9.55 (3.24)	7.21 (2.66)	2.51 [†]	
K-SWLS	23.73 (3.29)	23.55 (2.21)	24.61 (3.66)	.54	
인지 관련 변인					
숫자	11.82 (1.99)	12.73 (2.69)	12.68 (2.47)	.56	
어휘	12.27 (2.37)	12.00 (3.03)	12.89 (3.05)	.44	
기호쓰기	13.64 (1.91)	12.45 (3.62)	14.25 (2.74)	1.62	

주 1. STAI-T: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ERQ: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K-SWLS: Korean version of the 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

주 2. 1=긍정-유지 집단, 2=부정-감소 집단, 3=중립-증가 집단.

[†]p<.10. *p<.05.

하였다. 노인의 경우 부정 정서($F(2, 47)=3.84, p<.05$) 및 특성불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F(2, 47)=3.26, p<.05$), 인지적 재해석 요인($F(2, 47)=2.74, p=.08$), 그리고 신경증적 성향에서 차이의 경향성이 나타났다($F(2, 47)=2.49, p=.09$). 부정-감소 집단은 중립-증가 집단에 비해 부정 정서를 많이 경험하였으며($p<.05$), 불안 수준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p=.07$).

대학생 집단 비교

대학생 집단에서도 노인 집단과 마찬가지로 잠재 집단을 2개에서 4개로 증가시켰을 때 세 가지 정

보지수와 분류의 질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론적인 설명 가능성과 비교의 연속성을 함께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잠재집단의 수를 3개로 정하였다(표 3). 최종 분류된 3개의 잠재집단에 포함되는 대학생 참가자의 결과가 표 4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잠재집단 분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표 6), 대학생의 경우 긍정 정서($F(2, 47)=3.49, p<.05$), 인지적 재해석($F(2, 47)=5.77, p<.01$), 그리고 기호쓰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2, 47)=4.13, p<.05$). 부정-유지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인지적 재해석 점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표 6. 잠재집단 분류에 따른 정서 및 인지적 특성 비교: 대학생 집단 (N=50)

	긍정-유지 집단 (n=15)	부정-유지 집단 (n=4)	중립-증가 집단 (n=31)	F	post hoc
정서 관련 변인					
긍정 및 부정 정서 척도					
긍정 정서	31.53 (6.70)	24.50 (2.08)	26.77 (6.48)	3.49*	1>2 [†]
부정 정서	18.07 (4.91)	18.75 (4.99)	19.10 (5.10)	.21	
STAI-T	39.80 (12.25)	52.00 (9.87)	40.87 (8.85)	2.46 [‡]	
CES-D	9.53 (6.09)	14.00 (4.55)	11.29 (5.35)	1.16	
ERQ					
인지적 재해석	30.13 (6.59)	18.75 (7.14)	27.84 (5.50)	5.77**	1**,3>2
표현 억제	15.40 (5.84)	13.75 (8.96)	13.55 (5.42)	.52	
신경증적 성향	5.60 (1.77)	6.25 (4.27)	6.29 (2.41)	.43	
K-SWLS	23.73 (7.06)	19.00 (8.04)	22.58 (5.98)	.85	
인지 관련 변인					
숫자	11.20 (2.04)	13.50 (1.73)	11.61 (2.00)	2.11	
어휘	11.80 (2.34)	10.75 (1.71)	12.00 (1.95)	.66	
기호쓰기	10.80 (2.34)	14.00 (3.92)	13.13 (2.86)	4.13*	3>1*

주 1. STAI-T: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ERQ: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K-SWLS: Korean version of the 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

주 2. 1=긍정-유지 집단, 2=부정-유지 집단, 3=중립-증가 집단.

[†] $p<.10$. * $p<.05$. ** $p<.01$.

또한 중립-증가 집단은 긍정-유지 집단에 비해 기호쓰기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p < .05$), 긍정-유지 집단은 부정-유지 집단에 비해 긍정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경향성을 보고하였다($p = .07$).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대학생 집단에 비해 실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더 나은 정서조절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았다. 정서조절 양상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노인과 대학생의 기분평가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기분평가 시작 후 20분이 경과되었을 때 차이의 경향성이 나타났다. 또한 Larcom과 Isaacowitz(2009)의 연구와 동일한 방식(최초 기분 평정에서 50점을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함)으로 빠르게 정서를 조절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었을 때 노인 집단에서 빠른 정서조절자의 비율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젊은 사람보다 노인이 정서를 더 잘 조절하고 주관적 안녕감을 유지한다는 선행연구들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Birditt & Fingerma, 2005; Phillips et al., 2008; Scheibe et al., 2013). 노년기에 활성화 되는 정서조절 목표는 노인들로 하여금 많은 인지적 노력을 들이지 않고 긍정 정서를 최대화 하도록 하며, 이는 어느 정도 자동화된 과정으로 볼 수 있다(Stanley & Isaacowitz, 2011). 본 연구 결과는 정서조절에서 연령차를 살펴 본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정서조절 전략을 지시하고 있으며, 자기보고 설문지를 사용한 연구에서와 달리 실제 정서를 유도하고 조절해 가는 과정에서 연령차를 살펴 본 연구 결과들이 혼

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의미가 있다. 정서조절 전략을 제시하는 것은 연령에 따라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전략을 확인하고 어떠한 전략을 더 잘 사용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나, 실험실 상황에서 제시된 전략이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 정서를 유도한 후 별다른 지시 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러운 기분변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

자기보고 설문지를 통해 정서조절 전략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본 결과, 노인은 대학생에 비해 표현 억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Gross와 John(2003)은 대표적인 두 가지 정서조절 전략인 인지적 재해석과 표현 억제를 비교하였을 때 인지적 재해석은 더 높은 긍정 정서와 낮은 부정 정서, 낮은 우울증상, 더 높은 수준의 자존감 및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반면, 표현 억제는 이와 반대되는 경향과 관련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렇다면 노인이 대학생보다 표현 억제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를 노인이 더 부적응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Orgeta(2011)는 정서조절이 주의 선호에서의 연령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본 연구에서 노인은 대학생에 비해 인지적 재해석은 더 적게 사용하고 표현 억제는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표현 억제가 주의편향 점수와 부적 상관을 보이며, 이는 분노 단서를 더 많이 회피할수록 정서를 억제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는 것과 관련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다양한 연령대 참가자들에게 정서조절 질문지를 실시한 결과 표현 억제 요인에서 연령이 높은 집단(60-80세 이상)이 낮은 집단(20-39세)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와 비슷한 연령대인 60-69세 집단과 20-29세 집단의 비교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errari, Bruno, Chattat, & Codispoti, 2017). 앞서 살펴본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노인은 부정 정서 자극이 존재할 때 그것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고 표현을 억제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정서를 조절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전의 연구들에서 표현 억제가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으로 제안된 것과 달리, 노인들의 경우에는 부정 정서 표현을 억제함으로써 부정 정서를 감소시키고 정서적 안녕감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보고 설문지와 실험과제 결과를 종합해볼 때 노인은 대학생에 비해 더 빠르게 정서조절을 하는 경향을 보이며 정서조절 전략 중 표현 억제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경향은 여러 부정 정서 중 특히 분노 정서일 때 더 두드러진다.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경험하는 대표적인 부정 정서는 분노와 슬픔이다. 이때 슬픔은 상실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고 특정 상황에 대해 자신이 그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낮은 통제감을 보이는 노인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면, 분노는 성장이나 새로운 능력 습득과 같이 목표 추구적인 것 그리고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에 도전함으로써 그 상황을 통제하고자 하는 더 높은 통제감과 관련되어 젊은이들과 더 큰 연관성을 보이는 정서로 여겨져 왔다(Charles & Carstensen, 2008; Streubel & Kunzmann, 2011). Charles와 Carstensen(2008)은 연령 증가에 따라 부정 정서 경험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경향이 슬픔 정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반면 분노 정서에서는 나타난다고 제안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분노를 덜 표현한다고 보고하였다

(Birditt와 & Fingerman, 2005). 이처럼 노인들이 동일한 부정 정서에서도 개별 정서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정서와 연령 관련성뿐만 아니라 노년기에 우선시되는 정서조절 목표와도 관련된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서조절이 중요시되는데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협하기 때문이다(Mienaltowski et al., 2011). 이에 노인들은 분노 정서를 경험할 때 이를 표현하고 정서에 접근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보다는 분노 정서로부터 주의를 돌리고 표현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정서를 조절하게 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이 대학생에 비해 정서조절을 더 빠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이 결과가 모든 노인의 정서조절 능력이 높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에서의 연령에 따른 차이뿐만 아니라 개인차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위 잠재집단을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최종적으로 분류된 세 개의 집단에 분포된 비율을 확인해 보았을 때, 노인은 대학생 참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 집단에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참고로 하였던 Stanley와 Isaacowitz(201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저자들은 기분변화를 토대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긍정적으로 증가', '긍정에서 중립', '부정에서 중립', 그리고 '부정적으로 증가'로 분류되는 네 개의 군집을 도출하였다. 이때 노인 참가자는 네 집단에 고르게 분포된 반면, 대학생 참가자는 긍정 혹은 부정에서 중립으로 가는 집단에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분류되었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개인차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인데 단지 노인의 일반적인 처리과정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제안과 맥락을 같이 한다(Larcom & Isaacowitz, 2009).

한편, 노인 참가자 중 기분평가 초기에 부정적인 기분을 보고하였던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부정적인 정도가 감소하였던 반면, 대학생 참가자는 초기의 부정적인 기분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노년기에 정서조절 능력이 향상되어 부정적인 정서로부터 더 빨리 주의를 전환시킨다고 제안한 사회정서 선택 이론의 제안과 일치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정서 선택 이론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미래를 제한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며, 이로 인해 긍정 정서를 최대화하고 부정 정서를 최소화하려는 정서조절이 최우선 목표가 된다고 제안한다(Carstensen, 1992, 2005). 이러한 맥락에서 동일하게 부정적인 기분을 경험하더라도 노인 참가자는 대학생 참가자와 다르게 그 부정적인 정도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분변화 평가에 따라 분류된 각 집단이 보이는 특성 차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 노인 참가자의 경우 부정-감소 집단은 중립-증가 집단에 비해 부정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고 불안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우울하고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 정서를 지속적으로 반추하며 부정적인 기분 상태를 더욱 증가시키게 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Nolen-Hoeksema, Parker, & Larson, 1994). 또 다른 연구에서도 빠르게 정서조절을 하는 사람들은 불안과 우울 수준이 더 낮고 낙관적인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Larcom & Isaacowitz, 2009). 이와 같이 긍정 정서 경험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서조절을 잘 하는 사람들은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낮고 건강한 성격 특성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도 기분변화에 따른 집단 분류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긍정-유지 집단은 중립-증가 집단이나 부정-감소 집단에 비해 정서조절 전략 중 인지적 재해석을 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의분산과 인지적 재해석 전략의 사용에서 연령차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을 때 노인들에게는 부정 정서 맥락에서 인지적 재해석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Opitz et al., 2012; Scheibe, Sheppes, & Staudinger, 2015). 반면, 대학생 참가자에서는 부정-유지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인지적 재해석을 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지적 재해석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은 부정 정서와 우울 증상의 경험, 더 높은 수준의 낙관주의와 낮은 수준의 신경증적 성향과 상관이 있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Gross & John, 2003). 따라서 본 정서조절에서의 개인차 연구를 통해, 일반적으로는 표현 억제보다 인지적 재해석 전략이 정서조절에 더 효과적이고 적응적이라고 제안하지만, 노인 집단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대학생 참가자에서 긍정-유지 집단은 중립-증가 집단에 비해 단기 기억력 및 처리속도를 평가하는 기호쓰기 과제에서 더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숫자와 어휘 과제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대학생 집단에서 정서조절 능력에 따라 인지적 재해석 전략 사용이 유의하게 달랐던 점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사용하는 정서조절 전략에 따라 인지적 자원의 필요 정도가 달라지는데, 인지적 재해석은 인지적 노력이 요구되는 전략이다(Scheibe et al., 2015). 따라서 인지적 재해석 전략의 사용에서 유의한 차이는 인지 영역에서의 차이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 포괄적인 인지 영역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인지 영역과 정서조절의 관련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노인 대상자의 연령과 학력을 제한하였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노인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을 겪은 세대이며 이로 인해 저학력이나 문맹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이 우리나라 전체 노인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노인 참가자가 자기보고 설문지와 실험과제 등 전체 실험 과정을 이해하고 적절히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신뢰로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참가대상에 일부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추후 다양한 조건의 노인들이 수행하기 쉬운 실험 과제를 구성하여 참가대상 범위를 확대한다면 우리나라 노인의 전반적인 정서 특성을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정서유도 후 기분변화를 살펴 본 25분이라는 시간이 다소 짧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평가과정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25분 동안 기분변화를 확인하였으나 이 시간이 개인에 따라서는 정서를 조절하기에 짧을 수도 있다(Stanley & Isaacowitz, 2011). 우리가 일상에서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 이에 대해 반응하여 긍정 혹은 부정 방향으로 기분을 변화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은 사건, 개별 정서, 그리고 정서의 강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러 변인들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모두에게 가능한 동일한 자극이 되도록 실험을 설계하였으나 개인에 따라 받

아들이는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 좀 더 긴 시간 동안 기분이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본다면, 결과에서 나타난 차이가 실제 정서조절 능력 때문인지 아니면 정서조절 속도에서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분노 정서를 유발하기 위해 사용된 영상이 실제 대인관계 맥락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여러 부정 정서 중 분노 정서를 선택한 이유는 대인관계에서 정서조절 목표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정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실험에서 유발된 분노 정서가 대인 관계적 맥락에서 발생된 것은 아니다. 또한 사용된 분노 유발 영상의 자아관여도가 낮다는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일상생활의 대인 관계적 맥락을 잘 반영하며 자아관여도가 높은 자극을 사용하여 분노 정서를 유발하고 정서조절 과정을 살펴본다면, 이에 대한 더욱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 과정을 자기보고를 통한 기분변화라는 주관적 평정을 통해서만 확인하였다. 그러나 실험 상황에서 자기보고는 응답 편향, 기대효과, 혹은 실험 상황이라는 특수성 등 여러 요인이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추후 주관적 보고뿐만 아니라 심박 수, 피부전도 수준, 맥박용전진폭 등 생리적 반응을 함께 측정한다면 간접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노년기 정서조절 연구들이 주로 특정한 전략을 지시하거나 과제를 실시함으로써 상황 특정한 정서조절 과정을 살펴보았다는 한계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 가깝고 자연스러운 기분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연령에 따른 집단 차이뿐만 아니

라 개인차를 확인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정서기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 집단 내에서도 개인차 특성이 정서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정서조절 능력이 더 나은 사람들이 보이는 특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요소를 추후 정서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에 반영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참고문헌

- 강연옥 (2006). K-MMSE(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의 노인 기준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2), 1-12.
- 김민희, 민경환 (2004). 노년기 정서 경험과 정서조절의 특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2), 1-21.
- 김유진, 강연옥 (2016). 우울한 노인과 대학생의 정서적 정보처리과정: 주의편향과 기억편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9(4), 101-121.
- 김정택 (1978). **특성-불안과 사회성의 관계, Spielberger의 STAI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 김복환, 하문선 (2011). 간편형 한국어 BFI(Big Five Inventory) 타당화 연구. **인간이해**, 32(1), 47-65.
- 박은선, 이영호 (2016). 한국 노인과 청년의 부정적 정서조절에 연령과 개인 차이가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6(1), 123-136.
- 서은국, 구재선, 이동귀, 정태연, 최인철 (2010). 한국인의 행복 지수와 그 의미.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0(1), 213-232.
- 손재민 (2005). **정서조절방략 사용에서의 개인차: 인지적 재해석인과 정서표현 억제인의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태수 (2010). 종단프로파일분석과 군집분석을 이용한 잠재집단연구: 성장혼합모형과 비교를 통하여. **교육평가연구**, 23(3), 641-664.
- 유경, 민경환 (2005a). 연령 증가에 따른 정서최적화 특성의 변화: 정서 경험과 사회적 목표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 25(2), 211-227.
- 유경, 민경환 (2005b). 연령 증가에 따른 정서복잡성의 변화가 장노년기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 25(4), 189-203.
- 유경, 이주일, 강연옥, 박군석 (2009). 노년기 정서 경험의 변화와 주관적 안녕감: 종단 연구분석. **한국노년학**, 29(2), 729-742.
- 이승조, 최남도 (2009). 기본 정서를 유도하는 영상의 선정과 정서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탐구. **한국방송학보**, 23(3), 205-246.
-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935-946.
- 장은혜, 석지아, 엄진섭, 손진훈 (2005). 시청각 동영상(Audio-visual Film Clips)을 이용한 정서 유발프로토콜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17(1), 69-84.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찬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정혜윤, 진영선, 장문선 (2015). 불안 성향 노인의 정서인식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3), 91-113.
- 조명한, 차경호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서울: 집문당.
- 조아라, 정영숙 (2012). 노인의 감사와 성숙한 노화 및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4), 67-87.
- Birditt, K. S., & Fingerman, K. L. (2005). Do we get better at picking our battles? age group differences in descriptions of behavioral reactions to interpersonal tension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0(3), 121-128.
- Carstensen, L. L. (1992). Social and emotional patterns in adulthood: Support for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Psychology and Aging*, 7(3), 331-338.
- Carstensen, L. L. (1995). Evidence for a life-span theory of socioemotional selectivit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4(5), 151-156.
- Carstensen, L. L. (2006). The influence of a sense of time on human development. *Science*, 312(5782), 1913-1915.
- Carstensen, L. L., Pasupathi, M., Mayr, U., & Nesselroade, J. R. (2000). Emotional experience in everyday life across the adult life s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4), 644-655.
- Carstensen, L. L., Turan, B., Scheibe, S., Ram, N., Ersner-Hershfield, H., Samanez-Larkin, G. R., Brooks, K. P., & Nesselroade, J. R. (2011). Emotional experience improves with age: Evidence based on over 10 years of experience sampling. *Psychology and Aging*, 26(1), 21-33.
- Charles, S. T., & Carstensen, L. L. (2008). Unpleasant situations elicit different emotional responses in younger and olde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23(3), 495-504.
- Charles, S. T., Mather, M., & Carstensen, L. L. (2003). Aging and emotional memory: The forgettable nature of negative images for older adult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32(2), 310-324.
- Charles, S. T., Reynolds, C. A., & Gatz, M. (2001). Age-related differences and change in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over 23 yea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1), 136-151.
- Ferrari, V., Bruno, N., Chattat, R., & Codispoti, M. (2017). Evaluative ratings and attention across the life span: Emotional arousal and gender. *Cognition and Emotion*, 31(3), 552-563.
- Gross, J. J. (1998). The emerging field of emotion regulation: An integrative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3), 271-299.

-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348-362.
- Gross, J. J., & Levenson, R. W. (1995). Emotion elicitation using films. *Cognition and Emotion, 9*(1), 87-108.
- Isaacowitz, D. M., Toner, K., Goren, D., & Wilson, H. R. (2008). Looking while unhappy mood-congruent gaze in young adults, positive gaze in older adults. *Psychological Science, 19*(9), 848-853.
- Larcom, M. J., & Isaacowitz, D. M. (2009). Rapid emotion regulation after mood induction: Age and individual difference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4B*(6), 733-741.
- Lohani, M., & Isaacowitz, D. M. (2014). Age differences in managing response to sadness elicitors using attentional deployment, positive reappraisal and suppression. *Cognition and Emotion, 28*(4), 678-697.
- Martins, B., Ponzio, A., Velasco, R., Kaplan, J., & Mather, M. (2015). Dedifferentiation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in the aging brain.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 10*(6), 840-847.
- Martins, B., Sheppes, G., Gross, J. J., & Mather, M. (2018). Age differences in emotion regulation choice: Older adults use distraction less than younger adults in high-intensity positive context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73*(4), 603-611.
- Mienaltowski, A., Corballis, P. M., Blanchard-Fields, F., Parks, N. A., & Hilimire, M. R. (2011). Anger management: Age differences in emotional modulation of visual processing. *Psychology and Aging, 26*(1), 224-231.
- Mroczek, D. K. (2001). Age and emotion in adulthood.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0*(3), 87-90.
- Muthén, B. (2004). Latent variable analysis: Growth mixture modeling and related techniques for longitudinal data. In D. Kaplan (Eds.),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social sciences* (pp. 345-368). Thousand Oaks, CA: Sage.
- Nolen-Hoeksema, S., Parker, L. E., & Larson, J. (1994). Ruminative coping with depressed mood following lo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1), 92-104.
- Opitz, P. C., Rauch, L. C., Terry, D. P., & Urry, H. L. (2012). Prefrontal mediation of age differences in cognitive reappraisal. *Neurobiology of Aging, 33*(4), 645-655.
- Orgeta, V. (2011). Avoiding threat in late adulthood: Testing two life span theories

- of emotion. *Experimental Aging Research*, 37(4), 449-472.
- Phillips, L. H., Henry, J. D., Hosie, J. A., & Milne, A. B. (2008). Effective regulation of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negative affect in old age.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3B(3), 138-145.
- Ram, N., & Grimm, K. J. (2009). Growth Mixture Modeling: A method for identifying differences in longitudinal change among unobserved group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3(6), 565-576.
- Scheibe, S., English, T., Tsai, J. L., & Carstensen, L. L. (2013). Striving to feel good: Ideal affect, actual affect, and their correspondence across adulthood. *Psychology and Aging*, 28(1), 160-171.
- Scheibe, S., Sheppes, G., & Staudinger, U. M. (2015). Distract or reappraise? Age-related differences in emotion-regulation choice. *Emotion*, 15(6), 677-681.
- Shiota, M. N., & Levenson, R. W. (2009). Effects of aging on experimentally instructed detached reappraisal, positive reappraisal, and emotional behavior suppression. *Psychology and Aging*, 24(4), 890-900.
- Stanley, J. T., & Isaacowitz, D. M. (2011). Age-related differences in profiles of mood-change trajectories. *Developmental Psychology*, 47(2), 318-330.
- Streubel, B., & Kunzmann, U. (2011). Age differences in emotional reactions: Arousal and age-relevance count. *Psychology and Aging*, 26(4), 966-978.

Age-related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real emotion regulation after anger mood induction: A comparison of young and older adults

Hyo-Shin Kang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soong University

Jung-Hye Kwon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both age-related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real emotion regulation after anger mood induction. Older ($n = 50$) and young adults ($n = 50$) watched two negative films and rated their mood using a visual analogue scale every 2 min for approximately 25 min. The results revealed that older adults were more likely than younger adults to quickly regulate their emotions. To identify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 regulation, we conducted a growth mixture modeling on the mood ratings. Growth mixture modeling on the older adults group revealed three latent subgroups of mood-change trajectories: positive-maintain group, negative-decrease group, and neutral-increase group. A significant group difference was found for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 and anxiety level in older adults, and for positive emotional experience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in younger adults. The findings suggest that age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 regulation should be considered to elucidate emotional characteristics in old age.

Keywords: anger emotion regulation,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individual differences, growth mixture modeling